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금융위원회

“초저금리 대출, 착한임대료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신속 지원”

금융위,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은성수, 현장 신속대응 협조 당부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와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 조찬간담회를 열고 은성수 위원장과 정책금융기관장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참석하고,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대구에서 현장을 직접 살피고 있어 불참했다.

이날 금융위원장과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코로나 19관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 마련한 신규자금 2조원의 집행실적을 점검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금융애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코로나19로 어

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초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고, 기업은행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임대료’도 시행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자금지원 효과가 확실하게 체감되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존재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윤대희 이사장은 대구에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지역현장상황을 직접 살피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 피해기업 우대보증과 주력산업 융통화 회사보증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또 이번 지원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현장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대한 확실히 면책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시, 코로나19 지원에 따른 이익 감소분은 반영하지 않고 지원 노력은 가점 등을 통해 추가로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저축銀 수신금리 연이어 하락 시중은행과 변별력도 떨어져

이달들어 저축은행의 예금 수신금리가 연이어 떨어지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저축은행도 고금리 이자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까지 덮치면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계속되는 금리 인하에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과의 변별력 또한 많이 떨어지고 있다.

2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1.93%다. 불과 지난달에만 해도 6개월 만기 상품을 제외하고는 2%대를 유지하다 저금리 기조에 못이겨 1%대까지 떨어졌다.

저축은행 업계는 예금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올해부터 시행되는 예대율 규제에 따라 지난해 예수금 확보가 절실했는데 여기에 퇴직연금 정기예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여유가 생겼다. 지역 경제도 침체되면서 대출규모가 줄었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것조차도 버거워졌다는 분석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들도 이달부터 예금 금리를 연이어 인하하고 있다. 우선 신한저축은행은 지난 3일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0.2%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 12개월 만기가 1.6%로 변경됐고 24개월은 1.7%, 36개월이 1.8%로 각각 적용됐다.

이어 SBI저축은행이 13일부터 0.1%포인트를 내리며 36개월 만기 정기예금의 수신금리가 1.9%로 인하했다. 또 17일부터는 KB저축은행이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정기예금, 자유적립예금 상품의 이자를 0.2%포인트씩 일괄 인하했으며 19일부터는 OK저축은행이 OK정기예금과 OK e-정기예금의 1년만기 상품 금리가 연 2.0%에서 1.9%로 떨어졌다. 같은 상품 3년 만기는 2.1%에서 2.0%로 인하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코로나’에 건설사도 초비상

근로자 확진자 발생... 현장 폐쇄

건설 현장 근로자 감염 잇따라
출장·방문 금지 등 대응 총력

부동산 시장도 거래문의 급감
코로나 감염 우려에 대면 피해

12·16부동산대책 이후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이 ‘코로나19’ 악재로 매수·매도자 모두 자취를 감추며 비상이 걸렸다. 건설업계는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해당 현장을 폐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건설 현장 근로자는 지난 21일 경북 성주대교 확장공사 현장 1명, 22일 경기도 이천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현장 4명, 포항 해병대 공사 현장 1명 등 총 6명이며, 경기도 성남 분당 건설현장에서도 확진자 1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사들은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현장 근로자들의 위험지역 출장이나 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방역작업과 예방 교육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설현장은 현재 폐쇄 조치했다”며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 중이며 전사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직원들의 건강을 수시로 살피는 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규제대책에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꽁꽁 얼어붙고 있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건설업계가 혼란에 빠지자 국토부는 ‘코로나19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행동수칙을 비롯해 의심환자 또는 확진자 발생 시 사후조치가 포함됐다.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공공현장은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 등이 이뤄진다.

대면거래가 불가피한 부동산 거래 시장도 매수 문의가 급감했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주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매수 문의가 거의 없어 휴업에 들어간 중개업소들도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강남구는 소형 위주로 거래 될 뿐 중대형 아파트는 거래가 거의 없다”며 “강남구 삼성동의 경우 2월 1건이 거래됐다”고 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와 꼬마빌

딩은 물론 상가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1.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경기 침체에 코로나19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소셀커머스, 배달 앱 등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급증하고 오프라인 매장은 한산해진 모습이다.

아파트 분양시장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분양 일정을 미루거나 모델하우스를 온라인 개장으로 대체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올 봄 아파트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 전망이 제기된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연 교수는 “기존 부동산 규제정책 여파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전망”이라며 “외부출입이 어려워진 만큼 봄철 이사 수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민간공원 특례사업 따라 숲세권아파트 주목

쾌적한 환경에 수요자들 관심 높아
㈜한양, 삼산공원 특례사업 진행
부지 내 한양수자인 1252가구 분양

오는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원일몰제로 지정해제되는 공원은 전국적으로 397km²에 달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오랜 시간동안 공원시설로 지정됐으나 진전되지 않던 곳을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공원으로 공동 개발하는 제도다. 민간은 5만m² 이상 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입·개발해 70%를 공원으로 조성한 뒤 기부채납하고 30% 부지에는 아파트와 같은 비공원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에 민간사업자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정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들도 민간 주도로 공원을 개발하면 일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보상을 기다리던 토지 소유자에게도 희소식이어서 민·관·개인이 모두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민간공원 조성계획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가 관심 대상이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분양된 단지의 인기가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도 신규 특례사업지로 쏠리고 있다.



전남 순천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투시도.

전남 순천에서는 ㈜한양이 전남 최초 민간공원조성(삼산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한다. 한양은 삼산자연공원 부지 안에 있는 전남 순천시 용당동 175에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79~110m² 1252가구를 분양한다. 단지 인근에는 순천IC, 삼산로, 중앙로 등 교통환경이 갖춰져 있고, 삼산공원 외 봉화산, 동천천변공원 등이 자리하고 있어 쾌적하다.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이 예정돼 있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산 111-1 일원에 용인도시계획시설(영덕1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를 공급한다. 단지 인근에는 기흥호수공원, 영통체육문화센터, 태광CC 등과 영통지구, 흥덕지구, 기흥역세권 등이 있다.

이밖에도 부산에서는 명장공원, 동

래사적공원, 사상공원, 온천공원, 덕천공원 등 사업지 5곳(225만1628m²)에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체결해 도심공원 5곳과 4361가구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개발 부지 면적은 부산시민공원(47만3911m²)의 4배 넓이에 달한다.

제주에서는 총 8262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오동동 1596번지 일대 총 51만 769m² 중 81.7%인 42만 5590m²에 콘서트홀과 전시장 등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나머지 9만 5426m²에는 15층 높이의 공동주택 1630가구(임대주택 163가구를)를 건립된다.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석정근린공원이 민간개발을 통한 공원으로 조성된다. 평택시는 지난달 22일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상대상자로 평택석정파크드림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석정근린공원은 민간 사업부분 총면적 25만여m² 가운데 78%인 19만 여m² 면적이 공원으로 조성되며, 나머지 22%인 5만여m²에 오는 2023년까지 공동주택 1400가구가 건립된다.

청주시에서는 전체 17만3454m²의 흥골공원을 포함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확정된 8개 공원 중 구룡공원과 영운공원을 제외한 6개 공원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흥골공원에는 2025년까지 4만9349m²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한다.

/이규성 기자 peace@